



영산강·낙동강 물 합수 '국민 대통합을 위한 영호남 문화대축전'이 13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막했다. 이날 함께 열린 영호남 상생포럼 발대식에서 이낙연 전남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여창환 매일신문 사장 등 참석자들이 영산강 물과 낙동강 물을 한데 보는 '합수식'을 함께 하며 화합과 상생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서울=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호남 상생포럼 출범... 국민대통합 닷 올렸다

서울시청 광장서 발대식... 3일간 영호남 문화 대축전
광주일보-매일신문 지역 대표신문 주관 첫 화합 행사

영호남 화합과 상생을 위한 축제 한마당이 13일 영호남 상생포럼 발대식을 시작으로 개막했다. <화보 18면> 영호남 대표신문인 광주일보와 매일신문 공동 주관으로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국민 대통합을 위한 영호남 문화 대축전' 개막식에는 이낙연 전남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우동기 대구교육감, 이영우 경북교육감,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새누리당 이정현·장운석·주호영·이철우·김상헌 의원, 새정치연합 주승용·장병완·박해자·이개호 의원,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여창환 매일신문 사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영호남 광역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영호남 상생포럼'이 발대식을 열고 "영호남의 만남을 통해 지역의 벽을 넘어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국민대통합의 출발점이 될 것"을 다짐해 의미를 더했다.

광신대학교 설립 60주년 기념 선교대회
일시: 10월19일(주일)~22일(수요일)
장소: 광신대학교, 광주신일교회
문의: 062)605-1000

개막식에서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민간 차원의 영호남 화합과 화합은 있었지만 양 지역의 대표 신문이 손 잡고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상생과 화합의 열정이 축제의 시발점인 서울시청 광장에서 호남과 영남의 끝까지 뻗어서 지역감정 해소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창환 매일신문 사장은 "영호남 지도

자가 참여하는 상생포럼이 결성돼 더욱 뜻깊은 자리"라며 "이 같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노력이 계속되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축사를 통해 "언론이 앞장서서 상생기구를 만든 것이 더욱 뜻 깊다"며 "힘을 보탬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오랜 숙원의 실타래가 풀린 느낌"이라며 "이런 노력이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모였다"고 강조했다.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은 "영호남 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며 "영호남 상생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더 심각하다"며 "영호남이 힘을 합쳐 비수도권도 수도권만큼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은 미리 준비한 영산강 물과 낙동강 물을 한데 보는 '합수식'을 함께 하며 화합과 상생의 의지를 다졌다. 개막식에 앞서 오후 3시30분부터는 광주 어린이 공연단과 대구 청소년 대

북공연단이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식전 공연을 펼쳤으며, 공식 행사 이후에도 참석자들을 위해 식후 공연이 마련됐다. 화합 축제 이날날인 14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통합을 위한 국민토론회'가 열린다. 또 축제 마지막 날인 15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영호남 농·수·축 특산물 판매점이 운영되며, 여자팔씨름대회·사투리경연대회·마술퍼포먼스·영호남예술공연 등의 다채로운 이벤트도 펼쳐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군공항 이전 첫 발 市, 국방부에 건의서 제출

이전비용 3조5450억 소요
사업비 확보·부지 선정 과제

광주시가 반세기 동안 광주시민에게 전투기 소음 피해를 안겨준 광주 군용비행장 이전을 위한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디뎠다. 광주시는 13일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첫 행정적 공식 절차로 국방부에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공항 이전은 새로운 공항을 개발하는 비용을 광주시가 먼저 마련해 지출한 뒤 기존 공항 부지의 매각 대금으로 충당하는 '기부 대양



어' 방식으로 이뤄진다. 광주시는 건의서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새로운 군 공항 이전지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광주 군 공항을 새로운 부지로 이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는 군 공항 이전 비용으로 총 3조54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전부지 개발 수입은 3조5685억원(주거용지 33.2%, 상업용지 7%, 첨단산

업 및 연구개발용지 11.7%, 공원 녹지 32%, 도로 등 16.1%)으로 추정했다. 국방부는 광주시의 이전 건의서를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 예비 이전후보지와 지원 계획을 공고한 후 공모 절차를 거쳐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1964년 광주 군 공항 창설 이래 50년 동안 소음피해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군 공항의 이전 부지 확보와 수조원에 이르는 사업비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특히 지자체가 막대한 이전 비용을 포함한 이전문제를 직접 해결해야한다는 점은 큰 부담이다. 안용훈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건의서 제출은 군 공항 이전의 완성이 아닌 이전을 위한 첫 출발 단계"라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년 연속 8위 KIA의 몰락

선동열 감독 취임후
3년째 가을잔치 못가

'선동열호'의 세 번째 항해가 8위로 마무리 된다. <관련기사 20면> KIA 타이거즈는 지난 12일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 결과에 따라 남은 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최하위를 면하게 됐다. 12일 KIA가 삼성에 4-8로 졌지만 한화 역시 롯데에 2-4로 지면서 두 팀의 2014시즌 순위는 8·9로 확정됐다.

KIA는 오는 16일 삼성과의 원정 최종전, 1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한화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다고 해도 7위 자리에는 오를 수가 없다.

이로써 V10에 빛나는 '야구명가' KIA는 2년 연속 8위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으며 쓸쓸하게 시즌을 마감하게 됐다.

고향으로 돌아온 선동열 감독은 3년 연속 가을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면서 리더십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부임 첫해를 5위로 마감했던 선 감독은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8위 자리에 머물면서 고개를 숙이게 됐다.

지난 시즌에는 신생팀 NC에게 탈미를 잡으며 8위로 내려앉았고, 챔피언스필드에서 새출발을 한 올 시즌에도 한화와 시즌 막바지까지 최하위 다름을 벌이는 등 KIA에게는 악몽의 가을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먹는 것 산이거든 무느곤 못 가라!
일시: 2014. 10. 19(일) 09:30
장소: 모교운동장
전화: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 민 수

고운 City-I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모십니다.

모집부서 및 자격요건

구분	모집(전공)부서	인원	자격요건	근무지	비고
신입 / 경력	건축임원	0명	신입 · 전문대졸이상 (졸업예정자포함)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경력 · 공동주택 경력자 우대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본사 및 현장	정규직
	건축직	0명			
	전기	0명			
	기계설비	0명			
	회계, 세무	0명			
총무, 관리	0명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연락처 필히 기재요망)
- 2차: 면접(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제출서류
- 이력서(자사양식): 사진, 우측상단에 응시분야, 희망연봉 및 긴급연락처 명기
- 자기소개서(주요경력 위주로)
- 기술인력회합행 경력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해당기술자격증사본
- 졸업, 성적증명서(최종학교)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14년 10월 15일 ~ 10월 31일
- 접수방법: e-mail 접수: gowoon205@nate.com
- 전 화: 062-225-9300 담당자: 장진효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급여는 당사 규정 및 실무 경력에 따라 협의